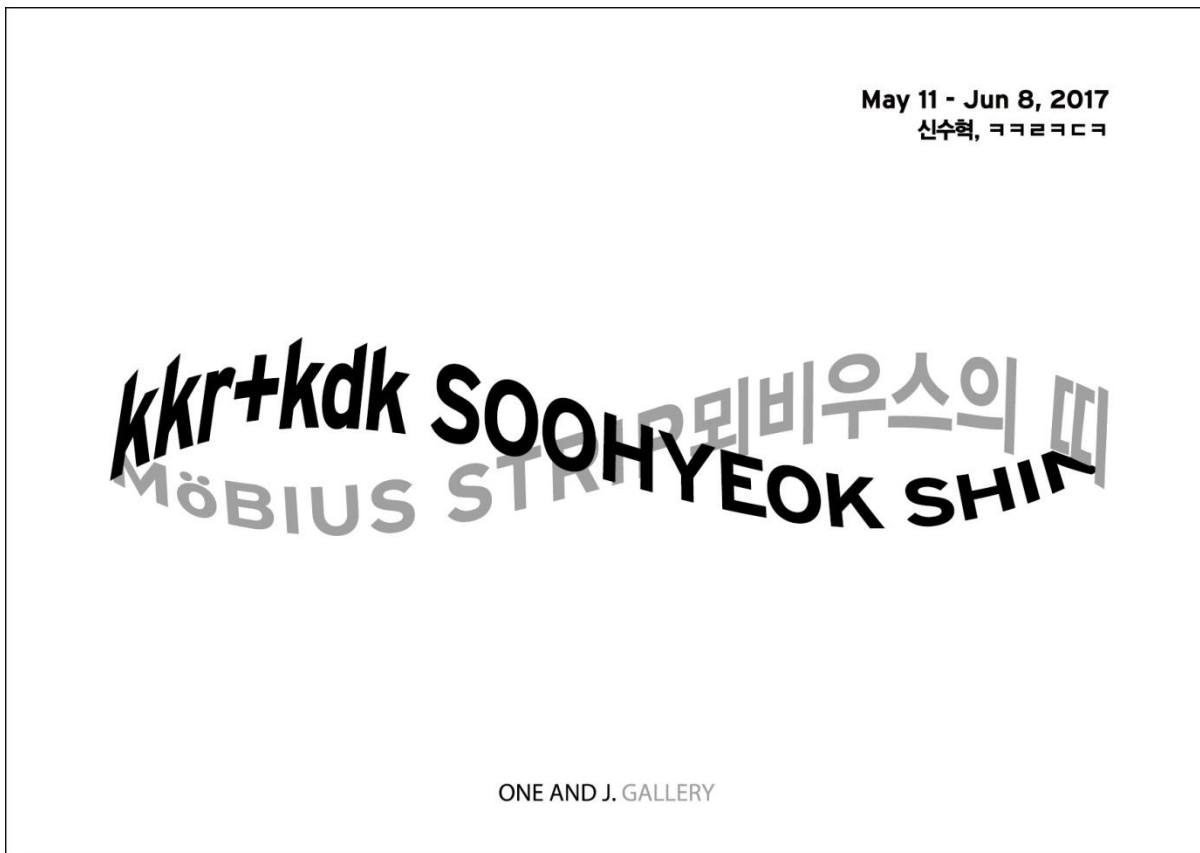


IMMEDIATE RELEASE



모비우스의 띠: 신수혁 & kkr+kdk

전시기간 2017년 5월 11일(목) - 6월 8일(목)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전시장소 원앤제이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4 / T. 02-745-1644)
 참여작가 신수혁, kkr+kdk
 웹사이트 www.oneandj.com

보도관련문의 김정연 (H. 010-7736-1505 / jkim@oneandj.com)
 양혜영 (H. 010-4645-2531 / hy@oneandj.com)

이미지다운로드 <https://www.dropbox.com/sh/uujk55ihtdofflh/AADo60vNXtVIOd0DpjjH-dQFa?dl=0>

전시내용

전시 <모비우스의 띠>는 지도와 건축물 양 끝점에서 출발한 신수혁과 kkr+kdk 의 서로 다른 궤적이 만나는 장이다. 건축물을 단순화하며 감각의 층위를 덧입히는 신수혁의 회화와 지리 정보를 해석한 건축가의 지도 작업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작한 kkr+kdk 의 가구는 모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의 구분없이 하나로

이어지며 유기적인 흐름을 빚어낸다. 화가 신수혁은 자신이 경험한 도시의 시공간을 다룬 지도 작업에서 시작해 건축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건축물을 주요하게 다뤄왔던 사진작가 김도균은 건축가 김경란과 함께 팀 kkrkdk 를 이루어 지도 제작에 기반한 가구를 제작한다. 이들의 조우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감각의 확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작가소개

kkkd (kkrkdk)

건축가 김경란(KKR)과 사진작가 김도균(KDK)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작업실이자 팀의 명칭이기도 하다. 건축과 미술이라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자연'과 '도시', '공간'과 '프로그램'의 재사용에 초점을 맞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있다. 고착된 인간의 행태 혹은 훈련된 감각, 잘못된 도시 사용, 왜곡된 자연친화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장치와 가구, 유틸리티 등을 디자인하여 본질에 걸맞는 디테일과 스케일의 작업을 구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수혁

작가 신수혁은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도쿄예술대학 회화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작업은 일상적인 도시 속에서 경험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본질을 탐색한다. 건축물의 단편을 그려오던 그의 작업은 점차 간결하게 표현된 그리드 형식의 건축물 파사드로 발전되었다. 건축물이라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선과 면의 중첩이 이루는 조형적인 구성과 다름없는 추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회화 작업으로의 발전이다. 2009년 원앤제이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이후 처음으로 원앤제이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서문

끝과 끝, 그리고 시작

주은정(미술사)

끝 1

신수혁의 건축물 파사드

신수혁은 건축물을 그린다. 평면이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한 화면 안에 건축물의 단편을 그렸던 그는 그리드로 간결하게 표현한 건축물의 파사드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의 그림은 선과 면의 중첩이 이루는 조형적인 구성의 특징을 띠었다. 투명한 푸른색의 물감층이 포개어지며 깊이감을 더했던 이 작업은 대상 건축물의 정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다. 이를 더욱 파고든 근작은 그 밀도를 더하면서도 최소화된 구조마저 왜해하는 지점으로 치달는다. 곧게 그린 직선 위를 짧은 선이 여러 차례 불규칙하게 훑고 지나가면서 그리드는 미세한 진폭의 파동으로 채워진다. 언뜻 보면 조밀하고

탄탄한 구조물이지만 화면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고르지 않은 짧은 붓획으로 흔들리는 이 구조물은 연결과 단절,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을 일으킨다.

미세한 균열은 신수혁 특유의 감각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초기 작업인 지도 작업에서부터 일관되게 흐르는 속성이다. 자신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의 지도를 낱짜를 의미하는 숫자 스탬프로 빼곡히 채워 그렸던 그의 지도는 분명 지도 그림이었지만 정보 전달이라는 지도 본래의 실용적 기능을 소거해버리는 지도의 와해이기도 했다. 그의 파사드의 이면에는 대상의 존재를 무화시켜 버리는 이와 같은 그의 오랜 세밀한 감각이 자리잡고 있다.

끝 2

kkrkdk 의 지도 테이블

kkrkdk 는 건축가 김경란과 사진작가 김도균이 이룬 팀으로 이들은 “고착된 인간의 행태 혹은 훈련된 감각, 잘못된 도시 사용, 왜곡된 자연친화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장치와 가구, 유틸리티 등을 디자인하여 본질에 걸맞는 디테일과 스케일의 작업을 구현하고자” 한다. 전시에서 이들은 지도를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테이블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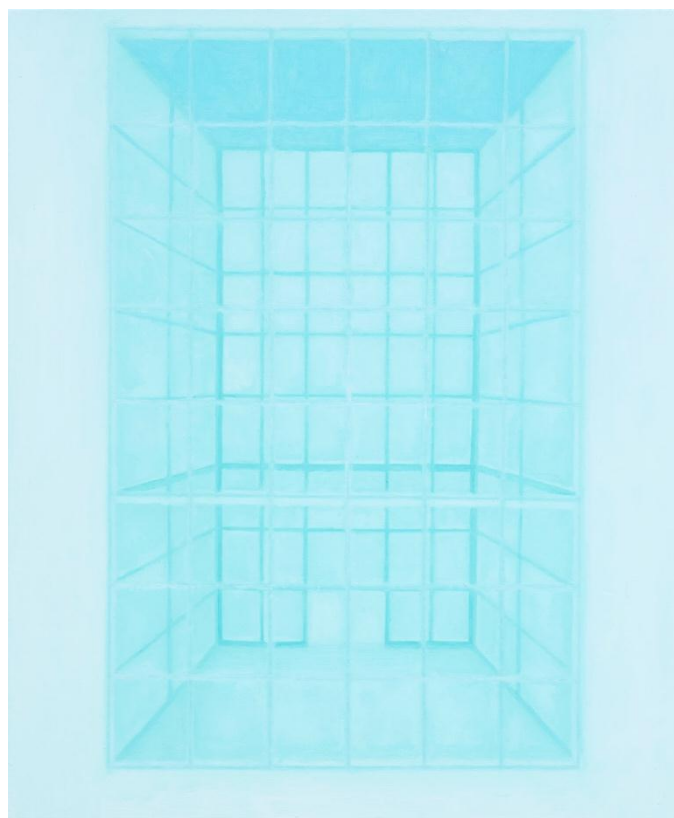
김경란은 특정 지역을 파악하고 이슈를 읽어내는 시각적인 정보 가공의 방식으로 손으로 직접 그리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지도를 제작한다. 이는 객관성과 실용성을 요구하는, 다분히 현실적인 작업이다. 김도균은 건축 사진을 제작한다. 대상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지며 카메라는 그것을 어떻게 포착하는가의 사진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그의 작업은 카메라의 시각에 충실한 비현실적인 사진을 넣는 역설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틈새를 날카롭게 비집는다.

김도균은 건축물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김경란의 지도를 바라본다. 다시 말해 그는 지도에 담긴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의 있는 그대로의 표층에 주목한다. 그의 시선에 의해 지도는 실용적 기능이 정지된 채 이미지로 그 위상이 바뀐다. 김도균은 이 지도 이미지를 다시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김경란과 함께 테이블을 디자인한다. 이들이 제작한 테이블은 전시장의 공간 조건을 고려한 크기와 형태로 조합되어 신수혁의 작품과 마주보고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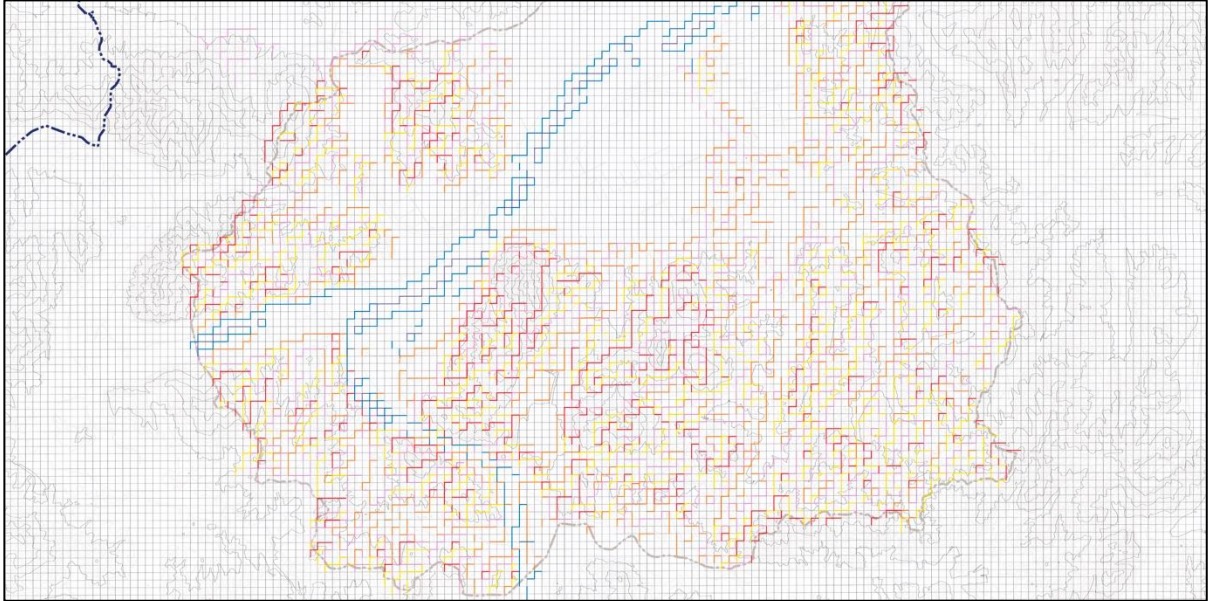
맞닿은 끝과 끝

지도에서 건축물로 전개되어온 신수혁의 그림과 건축 사진을 다루었던 시선으로 지도를 재해석하여 디자인한 kkrkdk 의 테이블은 전시장 안에서 서로의 시작점과 끝점을 물고 이어지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한다. 존재와 비존재, 실재와 가상의 틈새를 교란하고 유희하는 이 작품들이 서로 조용하고 교감하는 가운데 각 작품의 감각은 더욱 증폭된다. 이 교류의 장 속에서 보는 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된다. 그를 통해 또 다른 감각의 층위가 덧입혀지기를, 그래서 더욱 큰 감각의 파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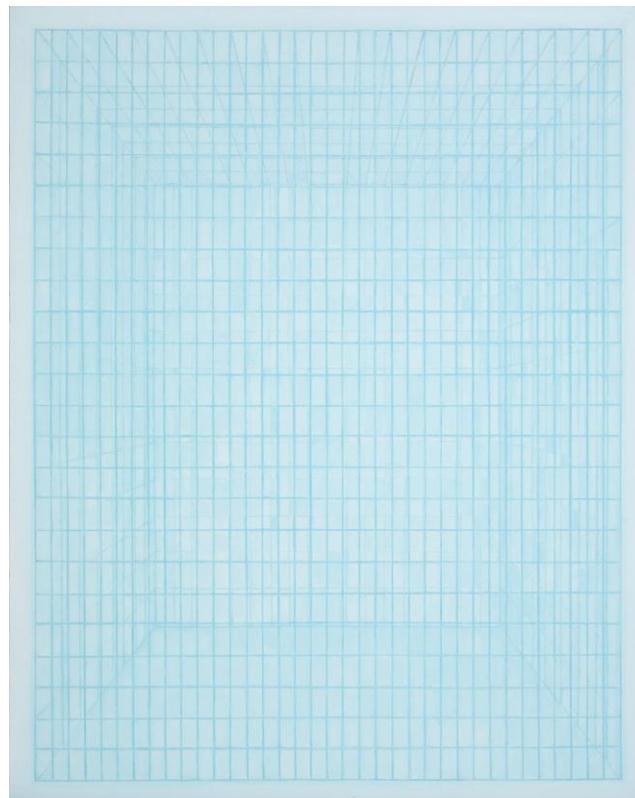
대표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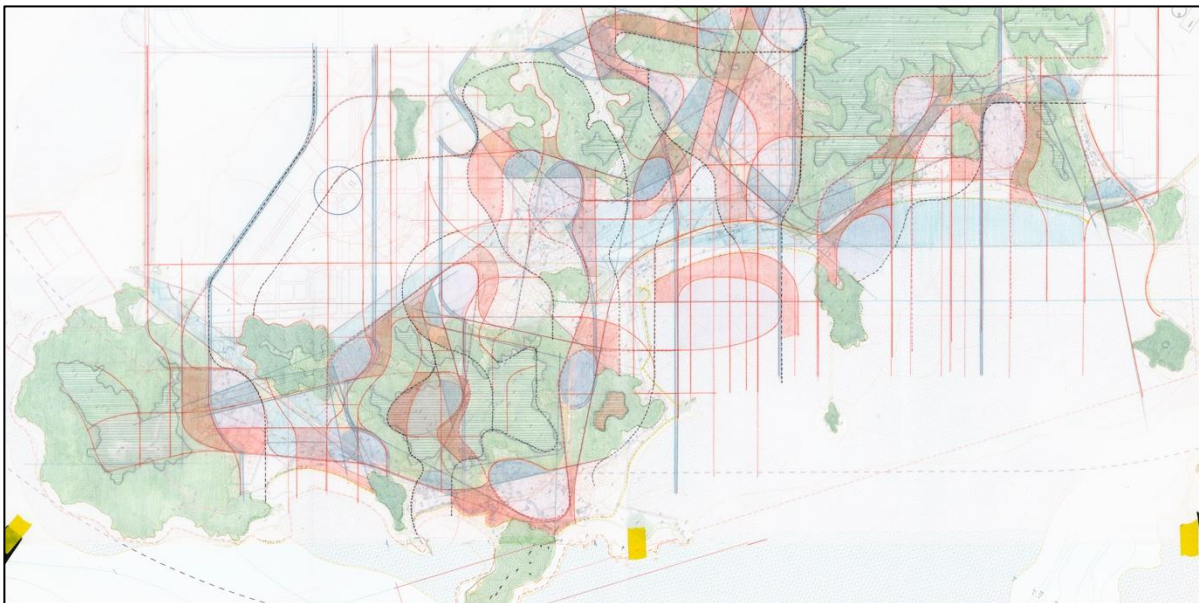
신수혁, Untitled 1604, 73x61cm, Oil on Canvas, 2016



ㅋㅋㅋㅋㅋ, 산, 들, 강을 위한 바느질 도안,
Pigment Print Mounted on Plexiglas Iron framed(테이블 상판), 90 x180 x 74 cm, 2017



신수혁, Untitled 1602, 182x227cm, Oil on Canvas, 2016



ㅋㅋㅋㅋㅋ, 고르게 꿰고 있는 팔죽도시,
Pigment Print Mounted on Plexiglas Iron framed(테이블 상판), 90 x180 x 74 cm, 2017

원앤제이갤러리 소개

2005년 가회동에 문을 연 원앤제이갤러리 ONE AND J. GALLERY는 지난 10여년간 한국의 젊은 현대미술작가들을 국내외 미술계에 소개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2010년 현재의 갤러리 사옥을 신축하였고, 강홍구, 권경환, 김수영, 김윤호, 김태윤, 서동욱, 오승렬, 이정, 니키리, 장민승 등의 갤러리 작가들과 함께 많은 전시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아트바젤 마이애미, 아트바젤 홍콩, 아모리쇼 등 주요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여 차세대 작가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의 국공립미술관은 물론 UBS collection, Bank of America 등의 기업컬렉션에서도 원앤제이갤러리 작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앤제이갤러리는 재능있는 국내외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한국현대미술의 주축이 되어 동서양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도 폭넓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문화를 계속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